

유아용 그림책에 관한 페미니즘적 접근*

A Feminist Approach to Picture Books for Kindergarten Children

정 대 련**
Chung, Dae Ryun

정 연 경***
Jung, Yeon Kyung

ABSTRACT

This analysis of the portrayal of characters in 74 picture books used in kindergarten focused on the gender types and roles of girls and boys, adult females, adult males, and feminist perspectives or sexism. Results showed that girls were rewarded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and accomplishments, and they were considered to have equal rights; boys were depicted as dominant, positive, logical, courageous and having initiative; adult females, especially mothers at home, were responsible exclusively for housekeeping and child rearing; adult males, including fathers, were depicted as dominant characters in a variety of professional occupations and social activities; nonetheless, in many books, children were depicted as androgynous personalities having human rights. Though these results show changes in gender stereotypes from the 1970s and 1980s, subtle biases of gender still remain in children's books.

Key Words

그림책(Picture-book), 여성주의(Feminism), 유치원(Kindergarten)

I. 서론

21세기 사회를 사는 현대인에게 있어 남성과 여성에 관한 차이를 논함은 시대에 뒤쳐진 발상 처럼 들린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산업혁명, 프랑 스 혁명 및 계몽사상, 자본주의 발전 등을 배경

* 본 연구는 교육부 두뇌 한국21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교육연구단 연구원

으로, 여성들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인식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제기하기 시작하고, 1869년 존 스튜어트 밀이 <여성의 예속>을 발표하여 자유를 통한 남녀평등의 방안을 제시한 이래, 20세기 넘어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여성해방의 기치 아래 남성과 똑같은 인간이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왔다(장미경, 1996).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여성중심 페미니즘, 문화주의 페미니즘, 흑인 페미니즘, 캐리어 페미니즘, 인도주의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등등(Tuttle, 1999), 약 300년에 걸쳐 성차별주의를 극복하고 성평등주의에 입각한 남녀동등 사회를 이룩하고자 기울여진 노력은 그 동안 괄목할 만한 결실을 보여, 오늘날 남녀평등에 대한 담론을 오히려 진부한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폄하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여성학적 접근에서 주장하듯이(유현옥, 1999), 사회는 아직도 남성중심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구조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존재상황의 차이를 낳고 성에 따른 특성 및 인식의 차이를 초래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태어나 생을 마칠 때까지 사회화를 경험하게 되고 각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이 다르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역할을 성(sex)에 의해 구분한다. 남성과 여성은 종족 보존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불가분의 공생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신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여성 고유의 가장 창조적인 기능은 '재생산'에 있으며, 이러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남성의 활동은 생산활동과 외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활동이라는 말이다(장미경, 1996; 한국여성학연구회, 1998; Tong, 1995).

남녀의 성역할에 관하여는 두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김동일 편저, 1993; 안병철, 1994; 한국여성연구소, 1999). 하나는 성역할이 생물학적 요인

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성과 여성이 성호르몬에 의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부장제 사회, 남성지배, 남성이 고위직중에 종사하는 현상의 보편화 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거한 입장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다양하며 이 다양성은 남녀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란 특정 문화적 환경 내에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남녀가 서로 다른 생물학적 존재이며 각기 다른 사회적 경험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말해 여성과 남성이 어느 정도 선천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사회문화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의 결과는 성에 주어지는 역할과 기대가 생물학적인 요인보다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강경희, 1998; 성구진, 1995; 심은아, 1997; 조정란, 2000). 사회는 어린 유아에게도 성역할을 기대한다(단현국, 1993; 염명순(외 3인), 1998; 이은화, 이경우, 1999; 유아교육사전, 1996; 정현희, 1993). 남녀 유아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의 차이에 따라 각 문화 내에서 남성적, 여성적 특질로 규정짓는 매우 다른 행동 양식을 기대 받게 됨으로써 성역할을 습득하게 된다(Zarbata-tany, Brunshot, Meadows & Pepper, 1996).

유아는 자라면서 발달 초기에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며, 이로부터 성정체성을 갖게 된다(문혜옥, 윤미현, 1992; 황은주, 2000). 유아는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권 내에서 자신의 성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속성, 즉 행동·성격·특성·정서적 반응·태도·믿음·가치관 등을 습득해 가는 성유형화(sex-typing) 과정에 입문하는 것이다(권기남, 1999; 성구진, 1995; 안선영, 1989; 황혜신, 이순형, 1990). 성유형화를

통해 유아는 자아개념과 자신에게 주어진 성별에 적절하다고 정의내려진 행동과 인식을 사회로부터 얻는다(Creany, 1995).

대부분의 문화에서 남녀의 성에 바탕을 둔 역할의 차이는 비교적 뚜렷하다. 사회가 성별의 차이에 근거하여 이에 적절한 행동을 개인에게 기대함으로써, 이러한 성역할은 각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남성다운’ 또는 ‘여성다운’ 존재로서의 행동과 태도로 지칭되듯이, 여성과 남성은 사회가 요구하는 성역할에 따라 행동과 의식에 제한을 받는다(신건호, 1992 ; 안선영, 1989 ; 유영란, 1997). 특히 성역할은 유아의 초기 학습 경험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Hartly는 4세의 여아가 자신의 주된 역할을 ‘가사들보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아의 경우에는 ‘돈 벌기’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Narahara, 1998a, 재인용).

한편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주어진 성역할에 맞는 행동을 기대한다는 것은 역으로 해석하면 이 틀에서 벗어나는 다른 행동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조정란, 2000). 즉, 유아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욕구나 성향이 사회적으로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 그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부정하거나 억누르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성 고정관념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경험을 제한시키려고 한다(Creany, 1995).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유아가 자신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정순화, 1992; Alexander & Hines, 1994 ; Fagot & Leinbach, 1989 ; Patt & McBride, 1993).

오늘날 현대사회가 산업화되고 그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과 성해방 및 여성해방운동 등의 영향으로, 전통사회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 또는 성역할 규범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잠재력을 최

대한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역할의 재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성역할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양성성 개념이 제시되었다(이은정, 1998, ; 홍연애, 1991 ; 황혜경, 1993). 남성성의 내용으로 취급되는 독립성이나 합리성, 용기와 여성적인 특성인 감정 이입, 부드러움, 보살핌 등은 남녀 모두에게 바람직한 덕목이고 실제로 누구나 잠재적으로는 양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공인숙, 최연실, 1994). 양성성에 관한 심리학 연구들(김미혜, 1985 ; 한국여성연구소, 1999)에 따르면, 성유형화된 사람은 여성성 또는 남성성의 기대에 부응하지만 이와는 달리 양성적인 사람은 더 광범위한 반응 목록을 갖기 때문에 상황에 더 융통성 있게,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성성과 남성성이란 서로 보완적인 덕목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대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성의 동시 성취가 불가능한 바, 양성성 개념은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많은 한계를 내포한다. 양성성의 개념은 그러한 관계 의미 영역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남녀 평등, 여성 해방의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성역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부모, 교사, 또래, TV, 도서 등이 있으며, 유아기 초기에는 특히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성정아, 1995 ; 신건호, 1992).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문혜옥, 윤미현, 1992). 영아기에는 신체적 측면에서 남녀 성차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Mitchell, Baker & Jacklin, 1989) 부모는 여아의 경우 “더 섬세하고, 약하고, 작다”고 생각하고 남아의 경우에는 “더 단단하고, 몸집이 크며, 날렵하고, 학구적이며, 더 튼튼하다”고 생각한다(Sprung, 1978). 유아의 모방과 관찰의 대상인 부모가 지니는 인식은 강화를 통해 유아에게 성유형화된 행동을 형성시킨다(권기남, 1999 ; Fagot

& Leinbach, 1989).

그 외에 유아교육기관이나, 학습 교재,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유아용 도서 등이 유아의 성역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아는 평소 자주 접하는 그림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그림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유아의 성역할 형성에 모델이 되거나 동일시의 대상이 된다(성정아, 1995; Halsall & Green, 1995). 사회학습이론가들은 책을 중요한 사회화의 수단이라고 지적한다. Weitzman은 그림책이 어린 유아에게 사회적인 가치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초기 유아의 성역할 사회화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말한다(Patt & McBride, 1993, 재인용; Zeece, 2001). 유아는 책 속에 등장하는 남녀 유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지 보면서(Creany, 1995),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생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 모델을 찾을 수 있다(Narahara, 1998a; Spitz, 1995).

그림책은 또한 유아의 성과 관련한 자아개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Martin, Eisenbud & Rose, 1995; Webb, 1993). 유아는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부합되는지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과 같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을 선호하며, 동성 등장인물의 행동을 더 많이 모방한다(Carter & Levy, 1988; Wintre, Licks & Mcvey, 1988). 기타 사회화 요인의 영향이 커지기 이전에 그림책이 성역할 태도 형성기의 유아에게 주는 감동과 영향은 크다(성정아, 1995).

1938년부터 1970년까지의 칼데컷상 수상작 도서에 대한 연구(Heintz, 1987, 재인용; Weitzman, 1972)를 보면 남녀의 표상 빈도와 성역할 표현에서 불평등한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1971년부터 1984년 사이의 칼데컷상 수상작을 대상으로 한 연구(CEACRE, 1996)에서도 성역할 고정관념과 함께 남성 위주의 이야기 전개로 남성과 여성이 불평등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밖

의 삽화나 행동양식의 표현에 있어서도 남성은 적극적이고 여성은 수동적인 모습으로, 혹은 사회활동은 남성의 몫 가사활동은 여성의 몫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Creany(1995), Narahara(1998a), 이영석(외 7인, 1993), 성정아(1995), 이은정(1998), 강유진(1999), 조정란(2000)등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정도가 약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남녀의 표상 빈도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고,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영향(김희정, 1998)으로 유아용 도서에서의 이 같은 성역할 고정관념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근래에도 여전히 미세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Narahara, 1998b). 2000년 연구에서도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의 출현 빈도에 큰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성에 따른 역할 구분, 고정관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발달에 미칠 수도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들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도서에 나타나고 있는 성역할의 양상이 문제시 된다. 어머니의 사회진출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유아교육기관에 맡겨지는 유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도서가 유아의 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Narahara, 1998b). 그러나 유아 도서의 활용 실태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은 유아교육현장의 교사들이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나 도서 영역에 제시할 교재용 동화를 자체 기관의 빈약한 장서 속에서 선택하며, 활용되는 동화의 주인공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2배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남성의 직업은 다양하게 나타난 것에 비해 여성의 직업은 주부, 공주, 왕비에 국한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혜경, 정대련, 2000; 이현정, 1999;

Zeece, 1997). 또한 이재옥(1999)의 연구도 유아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대체로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를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 성역할 개념에 관한 인식은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며,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유아 각각의 성에 따른 각기 다른 사회적 기대와 시각이 유아로 하여금 성고정관념적 시각을 갖게 하며, 이는 유아의 자아개념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 같은 성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유아가 평소에 접하게 되는 도서의 양상을 살피고 그 영향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치원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

는 도서들을 중심으로 성관련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용 그림책에 나타나고 있는 여아, 성인여성, 남성의 특성과 남녀평등적 측면을 살펴보려는 목표를 가진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용 그림책에 나타나고 있는 여아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용 그림책에 나타나고 있는 성인여성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용 그림책에 나타나고 있는 남성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유아용 그림책에 나타나고 있는 남녀평등적 측면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유아교사들이 유치원 학급에서 이야기나누기 시간이나 도서 영역에 비치하여 사용하는 유아 도서 74권(국내 30권, 외국 44권)이다. 대상도서는 한국어린이육영회 출판의 전집류에 포함된 13권과 기타 낱권으로 판매되는 61권의 도서이다. 이들 도서의 선정을 위하여 본 연구자들은 1차적으로 서울시내 및 과천 소재 중산층 유치원 8개원(서울 7개원, 과천 1개원)의 교사로부터, 1999년도 1년 동안 학급에서 유아들에게 제시한 동화를 기재하도록 요청하여 대상 도서목록을 작성하였다. 대상목록으로 집계된 도서는 서울시 소재 D유치원 도서방과 서울시내 대형서점인 K문고, 한국어린이육영회, 서울 사직동

소재 어린이도서관 각각에서 구입가능한 도서와 확인가능한 도서를 중심으로 검토, 수집되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이 수집할 수 있었던 도서는 교사들이 언급한 752권의 72.1%인 542권이었고, 이 도서들이 본 연구의 1차 분석대상이 되었다.

2차적으로 총 542권의 도서 중, 본 연구의 목적인 유아용 그림책에서의 성개념 및 성역할개념을 분석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주인공 성별이 인간이나 동물에 관계없이 여성, 남성 또는 양성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대상 도서 중 단순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도서는 성을

비슷한 가치관의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켜 문학적 스토리가 있는 도서로 제한하였다. 셋째,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성차별적 표현이 두드러진다는 국내·외 전래동화 및 신화, 위인전과 전통적 소재를 이용한 동화 중 창작 스토리가 없는 전통동화 및 글 없는 그림책을 제외시킴으로서, 국내·외 순수 창작 동화로 대상도서 범위를 정하였다. 넷째, 유아용 도서출판이 대폭 신장된 1990년도를 염두에 둔과 동시에, 유치원에서 사용되는 도서인 만큼 유치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제6차 개정 당시부터 즉 1998년부터 출판된 도서로 대상을 제한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선정된 도서가 53권이었으나 연구대상 수를 늘리기 위하여,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정된 1992년부터 출판된 도서를 포함시켰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총 74권의 도서가 최종 선정되었다.

유아용 그림책에 나타난 성 관련 특성을 살펴보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서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필 체크리스트가 필요함을 인식한 바, 우선적으로 Derman-Sparks가 제시한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 동화책 선정을 위한 지침(조정란, 2000 ; 한국 어린이문학교육연구회, 1999 ; 황은주, 2000 등에서 재인용) 6 항목을 참고하였다. Derman-Sparks의 지침에서는, 삽화에 고정

관념적인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야기에 성차별주의적(sexism) 태도가 나타나는가, 남녀 유아의 자아상에 주는 영향은 어떠한가, 작가가 남녀평등주의적(feminist) 관점을 가졌는가, 용어에서 성차별주의가 나타나는가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Narahara(1998a)의 아동문학에서의 성차별주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18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였다. Narahara의 항목은, 여아들이 외모보다는 노력을 통한 성취에 의해 강조되는가, 여성(여아 포함)의 모습이 수동적으로 표현되는가, 여성의 사회활동이 나타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사를 분담하는가, 비주류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여아와 남아들은 자기 독립적이고 서로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인가, 전형적인 성의 표현이 나타나는가, 남성들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등의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이상의 두 지침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조절하여 4범주 17항목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내용과 삽화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실시하였으며, 항목별로 대상도서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체크리스트 기록은 연구자 2명과 아동문학을 전공하는 석사학위 과정생 2명이 함께 참여하여 각자 기록하였으며, 기록자간의 일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III. 결과 및 해석

1. 여아에 관련된 성관념 <표 1 참조>

1) 여아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기 보다는 기술이나 경쟁에 의해 보상받는가와 항목에서, 대상도서 중 여아의 기술이나 경쟁을 통한 능력에 의해 보상받는 내용이 나타나는 도서가

16.22%이었다. 이는 「징글벨 징글벨」에서 쥐(여성)가 고양이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현명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어 문제를 해결하거나, 「훌륭한 선물」에서 여아가 선물 준비로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시켜 냄으로써 보상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여아가 등장하지만 기술이나 경쟁을 통한 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39.19%이다.

2) 여아의 외모보다는 노력을 통한 성취가 강조되고 있는가의 항목에서는 24.32%의 도서가 문제해결, 내적 성장, 자아실현, 이타적 행동 등의 여아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슬이의 첫 심부름」에서는 처음으로 심부름을 가게 된 이슬이가 초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내적으로 갈등하다가 마침내 심부름을 완수함으로써 경험하는 내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21.62%의 도서에서는 여아의 성취를 강조하는 사례를 볼 수 없거나, 노력에 의한 능동적 성취보다는 수동성에 의해 상황을 수용하는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

3) 성인여성과 여아는 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가의 항목과 관련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낄 때 남성 또는 연상자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거나, 문제해결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또는 의견표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등 수동적 여성상을 나타내고 있는 도서가 18.91%이었다. 「동강의 아이들」에서 여아는 장에 가신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끊임 없이 오빠의 돌봄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능동적 여성상을 나타내고 있는 도서는 36.49%이었는데, 이들 여성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신체적인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했고, 의견표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로라의 크리스마스」에서 로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또한 여성 전체를 성인여성으로 여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수동적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3 : 10, 능동적 여성인 경우에 5 : 20으로 수동적 또는 능동적 경우 모두 여아가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4) 여아와 남아는 민감성 또는 폭넓은 감정을 나타내는가의 항목을 볼 때, 74.32%의 도서가 남녀 유아 모두 기쁠 때는 크게 웃고 즐거워하며,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거나 슬픈 표정을 짓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놀라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하는 등의 폭넓은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18.92%의 도서에서는 남녀 유아의 감정 표현이 나타나지 않거나 감정 표현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까마귀 소년」에서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아는 눈물을 흘리는데 반해 남아는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남녀 양성 중 여성의 감정 표현이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5) 경멸적인 성의 전형이 나타나는가의 항목과 관련하여, 경멸적인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도서는 없었으나, 51.35%의 도서에 전형적인 성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의 전형이 나타나지 않는 도서는 43.2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 도서가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선정하여 유아들에게 제공했던 도서인 만큼, 본 항목의 “경멸적” 또는 “비하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그림 또는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한 바, 남녀 유아의 전형적인 색깔(파랑은 남자, 빨강은 여자)이나 장난감(로봇은 남아, 인형은 여아), 옷에 의한 구분(남아는 바지, 여아는 치마), 소극적인 전형으로서의 여성의 모습, 회사를 다니는 아빠와 집안일을 도맡아하는 엄마 등,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양식에 대한 외적 평가를 했을 때, 성을 전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표 1>에서 '상관없다'의 항목은 여아, 남아 또는 여성이 동화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전형적인 성의 표현이 나타나는 가를 평가할만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표 1> 여아에 관련된 성관념

단위: 권(%)

	그렇다	아니다	상관없다	계
여아들의 기술경쟁에 의한 보상	12(16.22)	29(39.19)	33(44.59)	74(100)
여아들의 외모보다는 성취의 강조	18(24.32)	16(21.62)	40(54.05)	74(100)
수동적 모습의 여성	14(18.91)	27(36.49)	33(44.59)	74(100)
폭넓은 감정대응을 하는 남아와 여아	55(74.32)	14(18.92)	5(6.76)	74(100)
성의 전형이 나타나는가	38(51.35)	32(43.24)	4(5.41)	74(100)

2. 여성과 관련한 성역할적 특성 <표 2 참조>

1) 가정 밖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는가에 해당되는 도서를 살펴보면(<표 2-1> 참조), 어머니가 등장하는 도서 35권 중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어머니가 나타난 도서는 1권(2.86%)이었다. 「피로와 소방대」에서만 일하러 나간 어머니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서도 어머니의 정확한 직업은 나타나지 않고, 단지 "아빠와 엄마는 일하러 나가시고" 라는 문장에서 어머니의 사회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97.14%의 도서에서는 집안에서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어머니의 직업 중 관리적이거나 기술적인 직업 이외에 어떤 다른 직업이 나타나는가의 항목에서는(<표 2-1> 참조) 어머니 모습이 나타난 도서 중 주부 이외에 어머니의 직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도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0%),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진 35권 도서에 나타난 어머니의 역할은 가사를 돌보는 일에 국한된 것이었다(100%).

3) 비주류층인 다른 문화, 계층, 집단의 여성의 모습이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는가의 항목에서 대상도서 48권 중 (<표 2-1> 참조), 이들의 모습이 나타난 도서는 6.25%로 그들은 「오세암」의 맹

인여아, 「피터의 의자」의 흑인어머니, 「우리동네 할머니」의 할머니 등이었다. 비주류층은 일반적 시각에 비추어, 사회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그 사회의 기준에 따라 여러 집단이 비주류층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장애, 인종, 연령의 기준으로 구분된 비주류층의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머지 93.75%의 도서에서는 이 같은 집단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4)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사에 참여하여 역할을 동등하게 분담하는가의 항목에서, 아버지의 자녀 양육 활동은 3의 2) 항목에서 평가되므로 본 항목에서 제외시키고 볼 때, 대상도서 중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가사를 분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도서는 없었다(<표 2-1> 참조). 가족이 함께 있는 경우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 청소, 요리, 빨래 등의 가사를 전담하고 있다(100%). 「우리 가족」의 고모 결혼식을 준비하는 집안 풍경에서 남자어른들은 모두 외출하려는 모습으로 그려진 반면에 여자어른들은 뒤쪽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5) <표 2>에서 '상관없다'의 항목은 여성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가족구성원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사분담이 이루어진 다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표 2> 여성과 관련한 성역할적 특성

단위: 권(%)

	그렇다	아니다	상관없다	계
사회생활을 하는 어머니	1(1.35)	34(45.94)	39(52.70)	74(100)
관리직·기술직 이외의 어머니의 직업	0(0.00)	34(45.94)	40(54.05)	74(100)
비주류층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3(4.05)	0(0.00)	71(95.95)	74(100)
가족구성원의 가사분담	0(0.00)	31(41.89)	43(58.11)	74(100)

<표 2-1> 여성 집단내의 비율

단위: 권(%)

	그렇다	아니다	계
사회생활을 하는 어머니	1(2.86)	34(97.14)	35(100)
관리직·기술직 이외의 어머니의 직업	0(0.00)	35(100.0)	35(100)
비주류층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3(6.25)	45(93.75)	48(100)
가족구성원의 가사분담	0(0.00)	31(100.0)	31(100)

3. 남성과 관련된 성관념 및 성역할적 특성 (표 3 참조)

1) 남성(대)명사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에 더 많이 사용되었는가의 항목에서 남성 인물이 등장하는 도서 중 남을 괴롭히는 남성 인물의 모습이 나타난 도서는 12.16%로 여기에는 언어폭력, 놀리기, 위협하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83.78%의 도서에서는 남성이 특별히 남을 괴롭히는 행동을 보이지 않거나, 배려적 행동 또는 이타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2)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의 항목에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나타난 경우는 16.22%이다. 「엄마가 알을 낳았다」에서 아빠가 엄마와 함께 두 자녀에게 성교육을 시키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아빠, 우리 아빠」에서는 일요일 하루 종일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아버지가 등장하지만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어머니의 양육

행동만 보이는 경우도 12.66%에 이르며, 「아빠 두더쥐의 코고는 소리」에서처럼 함께 놀아달라는 자녀의 부탁에도 계속 잠만 자는 아버지 모습도 나타난다.

3) 인간이 아닌 등장인물은 전형적인 성으로 인격화되는가의 항목에서 그 습성 또는 성질에 의해 남성 또는 여성의 전형으로 인격화되는 도서로 「만약 내가 사자라면」의 사자가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남성으로 묘사된 1가지 경우(1.35%)가 확인되었다. 또한 인간이 아닌 동물이 등장하는 이야기의 경우에도 성별이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중성 인물이나 여러 동물이 함께 등장하여 한쪽의 성으로 전형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골고루 성별이 섞여있는 경우는 18.92%로 집계되었다. 인간이 아닌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도서 15권만을 기준으로 보면, 비전형적으로 묘사한 경우가 93.33%이다.

4) <표 3>에서 '상관없다'의 항목은 남성 또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인간이 아닌 등장인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표 3> 남성과 관련된 성관념 및 성역할적 특성

단위: 권(%)

	그렇다	아니다	상관없다	계
남을 괴롭히는 남성의 모습	9(12.16)	62(83.78)	3(4.05)	74(100)
아버지의 양육 참여 행동	12(16.22)	12(16.22)	50(67.57)	74(100)
인간이 아닌 등장인물의 전형적 성묘사	1(1.35)	14(18.92)	59(79.73)	74(100)

4. 그림책에 나타난 남녀평등적 표상

(표 4 참조)

1)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인물은 서로 평등하게 존중하는가의 항목에서 남아와 여아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아이디어를 교환하거나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 등 평등하게 존중하는 모습이 나타난 경우가 44.59%이다. 또한 32.43%의 도서에서는 남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반면 여아의 의견은 제시되지 않는 등, 남녀 양성간의 불평등 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2) 여아와 남아는 신체적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는가의 항목에서 56.76%의 도서가 모험 상황, 실내·외 놀이 상황 등에서 동등하게 활발한 신체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아는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는 반면 여아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또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도서가 31.08%이다.

3) 여아와 남아는 자기 독립적이고, 현명하며,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만큼 용감하고, 그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는가의 항목에서 그렇다에 해당하는 도서가 82.43%이었다. 남녀 유아는 자주적이며 비의존적이고, 자기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고 내적 성장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 유아가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4.05%이었다.

4) 강인함, 진취성, 용기, 동정심, 인정 등은 성 특유의 본성이 아닌 인간의 특성으로 보여지고 있는가의 항목에서 이와 같은 특성이 전형적인 남성성 또는 여성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닐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77.03%이었다. 20.27%의 도서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이 전형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여아와 남아가 자기자신을 인지할 때, 또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지닌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도록 돕는가의 항목에서 남녀 양성의 유아에게 동등한 권리를 지닌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도서는 64.86%이었다. 「재미있게 놀고 나면」에서 친구와 함께 놀고 난 뒤에 함께 장난감을 치우는 것, 「웃놀이 이야기」에서 남아와 여아가 함께 활발하게 신체활동을 하는 것, 「등불 축제」에서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 등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반면 24.32%의 도서는 유아에게 그가 남성 또는 여성이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6) <표 4>에서 '상관없다'의 항목은 남아와 여아가 각각 등장하지 않거나 동시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양성간 평등의식을 볼 수 없는 경우 또는 인간성에 대한 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표 4> 그림책에 나타난 남녀평등적 표상

단위: 권(%)

	그렇다	아니다	상관없다	계
남성과 여성인물 간의 평등 존중	33(44.59)	24(32.43)	17(23.00)	74(100)
여아와 남아들의 동등한 신체활동	42(56.76)	23(31.08)	9(12.16)	74(100)
자기독립적이고 현명한 여아와 남아	61(82.43)	3(4.05)	10(13.51)	74(100)
인간성으로서의 강인함 용기 동정심 인정	57(77.03)	15(20.27)	2(2.70)	74(100)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인식하게함	48(64.86)	18(24.32)	8(10.81)	74(10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999학년도 현재 유치원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림책 74권을 중심으로 이야기와 삽화에 나타난 여아 및 성인여성과 남성의 특성 그리고 남녀 평등주의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아에 관한 성관념의 특성에 관한 논의

첫째, 여아가 받는 보상이나 평가의 기준이 아름다움인가 아니면 기술이나 경쟁인가의 문제이다. 총 74권의 대상도서 중 물질적인 보상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 내적 깨달음을 통한 성장, 타인으로부터의 칭찬과 같은 심리적 보상을 포함하여 기술이나 경쟁에 따른 보상이 나타나는 도서가 16.22%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술이나 경쟁을 통한 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39.19%에 이르고 있다. 1972년 보고된 Weitzman 등의 Caldecott 수상작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성취가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만 얻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att & McBride, 1993). 그러나 1987년에 보고된 Caldecott 수상작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은 (Heintz, 1987) 용기와 현명함에 의해 성취를 이루고 보상을 받는 등 다소 변화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나 경쟁을 통한 보상

이 나타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1/2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 아직도 여성의 평가 기준이 성전형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아의 외모보다 노력을 통한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가를 묻는 항목을 보면, 대상도서 중 24.32% 도서가 문제해결, 내적 성장, 자아실현, 이타적 행동 등에서 여아의 성취를 강조하는 반면 21.62%의 도서에서는 노력에 의한 능동적 성취보다는 수동성에 의해 상황을 수용하는 여아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 Schubert(1980)의 연구에서는 매력적인 외모가 여성 성취의 주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 본 연구는 여아의 외모에 의한 성취보다는 수동적 상황에 대한 수용이란 면에서 기존의 성전형적 사고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조정란(2000)은 그림책 내의 남자 주인공이 '지식과 지혜'의 주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여성 주인공은 '우애와 타인 존중'을 주제와 관련하여 성전형적 표현의 하나로 보고하고 있는 바, 이런 결과는 본 연구의 여아의 성취특성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열어 놓고 있다. '우애와 타인 존중' 등은 바람직한 윤리성이므로, 이를 양성성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반면, 논리성 또는 합리성 등을 결여한 여성 전형의 특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본 연구에서 외모에 의한 성취의 예가 나타나지 않음에 대해 성차별의 극복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셋째, 성인 여성과 여아의 의존성 또는 수동적 특성에 대한 문제에 관한 것이다. 대상도서 중, 수동적 여성상을 나타내고 있는 도서가 18.91% 인 반면 능동적 여성상을 나타내고 있는 도서는 36.49%로서 전형적 여성성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Nilson(1970)의 Newberry 수상작 25권의 그림 연구에서 여성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이를 “cult of apron”이라고 명명함), Albers(1996)는 Caldecott 수상작 연구에서 여성주인공은 자아가 없고, 보살피는 행동을 나타내며,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존재로 묘사된 반면, 남성주인공은 모험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Narahara, 1998b), 26년의 시간차 속에서도 여전히 여성의 수동성이 강조되고 있다. Singh(1998)도 유아용 도서에서 여아는 활동적이기보다는 남의 행동을 좇아 행동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밝혔고, 성정아(1995)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모습은 여전히 수동적 수용, 소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능동적 여성상이 수동성에 비하여 2배 가량 높게 나타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기존 여성성에서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넷째, 성의 전형을 묻는 문제에서는 전체의 51.35%의 도서에서 전형적인 성별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등장인물이 표상하는 직업의 절반 이상이 남녀 성별에 고착된 전형적 유형임을 나타내는 바, 남녀 성별에 따라 성별 분업이 나타난다는 조정란(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차별화된 남녀의 의복양식에 따라 그들의 행동에도 각각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는 홍선옥(1995)의 연구와 여성의 고유한 의복양식인 치마나 드레스가 여성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Heintz(1987)의 연구 등과 비교할 때, 남녀

의 의복형태에서도 전형적 성의 표현이 나타난다는 본 항목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하겠다.

다섯째, 민감성 또는 감정 표현과 관련하여 74.32%의 도서에서 남녀유아가 동일하게 기쁨과 슬픔, 놀람과 두려움 등의 감정을 폭넓게 표현하고 있으나, 18.92%의 도서에서는 감정 표현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 감정 표현의 정도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성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반면 여성은 항상 온화한 표정과 몸짓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보고한 조정란(2000)의 연구, 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정을 강하게 표현한다고 보고한 Schubert(1980)의 연구와 비교할 때, 남녀 동일한 감정표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도서가 1990년대의 창작동화 중 유아교사들에 의해 선정된 도서인 만큼, 등장하는 남녀 인물의 정서가 보다 양성성에 가깝고 적극적인 감정 표현이 포함된 도서들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 성인 여성과 관련한 성역할적 특성에 관한 논의

첫째 가정 밖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어머니가 나타나는 35권의 도서 중 1권의 도서만이 정확한 직업은 소개되지 않은 채 일하러 나간 어머니를 나타냈고, 97%의 도서에서는 집안의 어머니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DeCrow (Henderson, 1978, 재인용)의 연구처럼 미국의 10개 출판사에서 발행된 초등학교의 사회과 교과서에 집밖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거나 집밖에서도 전통적 역할을 수행하는 어머니만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 여성들의 역할이 집안일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연구(성정아, 1995 ; 조정란, 2000 ; Creany, 1995)

와 모두 일치하고 있다. 유아용 그림책에 어머니의 사회 활동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직업과 관련하여, 대상도서 중 어머니의 직업이 정확하게 명시된 도서는 없었으며(0%), 간호사, 유치원 교사, 기상캐스터 등이 어머니 이외의 여성의 직업으로서 주로 남성의 보조적 역할이나 전형적인 여성의 직역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남성만이 다양한 범위의 직업을 가지며 여성의 직업은 제한되어 있다는 선행연구(CEACRE, 1996)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가 등장하는 34권의 도서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대부분 앞치마를 두른 모습으로 집안 청소, 요리, 빨래 등의 가사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바, Mosely(1997), 성정아(1995), 김주희(1998)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여성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지극히 부당한 결과라 하겠다.

셋째, 가사 활동에 가족이 모두 참여하며 역할을 동등하게 분담하고 있는가의 항목에서, 어머니 이외의 가족 구성원 또는 남성이 가사를 분담하는 모습은 대상도서에 나타나지 않고, 어머니가 등장하는 도서의 82.35%에서 어머니가 가사를 전담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가사 일을 수행하는 동안 단지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나(Schubert, 1980), 가사 일을 돕는 남성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Heintz, 1987), 자녀양육에 참여할 뿐, 남성은 집안 청소나 요리, 빨래 등의 가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려지고 있다는 선행연구(김주희, 1998 ; 조정란, 2000)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넷째, 비주류층의 여성의 면에서, 대상도서 중 이들의 모습은 여성이 나타나는 도서 중 3권(6.25%)에서 발견된다. 비주류층의 기준을 African American, Mexican American 등 인종에 의해

구분한 Narahara(1998b)의 연구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맹인소녀, 흑인어머니, 할머니 등 사례 수는 적으나 비주류층의 범위가 장애, 인종, 연령 등으로 확장되어 있다.

3. 남성과 관련된 성관념 및 성역할적 특성에 관련된 논의

첫째, 아버지의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대상도서 중,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아버지가 등장하는 도서 24권을 기준으로 보면 50%에 이른다. 아버지가 등장하나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이 보여지는 경우도 50%이다. 1980년대의 연구(Heintz, 1987 ; Schubert, 1980)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에 반해, 조정란(2000)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가 일부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50%에 이르고 있음은 남성의 자녀 양육에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남성(대)명사의 사용에 있어서, 대상도서 중 남성 인물이 타인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묘사된 도서는 언어폭력, 놀리기 등을 포함하여 12.16%의 빈도를 보이며, 특별히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빈도는 83.78%이다. Heintz(1987)의 연구에서는 남성 인물이 주로 사냥꾼이나 전사 등과 같은 공격적 인물로 등장하며, 여성 인물에 비해 공격적이거나 남에게 해를 입히는 모습으로 나타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여성인물의 공격성이나 폭력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에 비하여 남성의 경우 12% 수준에서 타인에 대한 공격성 또는 타인에 대한 괴롭힘의 예가 발견된다. 그러나 이 예도 유치원 교육 차원에서 공격성이나 폭력성 등 부정적 성향이 지양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현

대 남아에 대한 양성성 기대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인간 이외의 등장인물의 성과 관련하여, 대상도서 중 인간이 아닌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경우, 그 습성 또는 성질에 의해 전형적 남성 또는 여성으로 인격화되는 경우는 6.7%의 빈도를 보이며, 중성이나 동물의 성별이 골고루 섞여있는 경우는 93.33%로 나타나고 있다.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경우, 인간이 아닌 남성 동물이나 신, 악마와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는 선행연구(Heintz, 1987)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인간의 경우 전형적 성을 고려한 인격화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현대에 이르러 중성적 인물 묘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김주희, 1998), 중성적 인물 묘사가 그 인물에 대한 상상을 자극할 수 있어 긍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Creany, 1995)도 보고된 바 있으나, 인간의 성이 양성임을 고려할 때 성개념상 중성적 인물의 효과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그림책에 나타난 남녀평등적 표상에 관한 논의

첫째, 남녀 등장인물의 평등한 대우에 있어서, 대상도서 중 여아와 남아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아이디어를 교환하거나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 등 평등하게 존중하는 모습이 44.59%로 나타남과 동시에 32.43%의 도서에서는 남녀 양성간의 불평등 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녀 등장인물의 신체 활동 참여에서 대상도서 중, 56.76%의 도서가 남녀아 모두의 동등하고 활발한 신체활동을 묘사하고 있으며, 반면 31.08%는 남녀아의 상반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Heintz, 1987 ; Narahara, 1998a), 여아의 경우 일상생활 활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면 남아의 경우에는 놀이, 여가 활동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조정란, 2000). 남녀아 44.59%가 상호 평등하게 존중하며 56.76%가 동등하게 신체활동을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점차 더 많은 여성인물이 활발한 신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Creany(1995)의 연구와 일치된 추세를 보임으로써, 남녀 평등 사회를 향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여아의 의복 형태로 치마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치마와 드레스가 여성으로 하여금 모험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선행연구(Heintz, 1987)의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문제이다.

둘째, 남녀아의 독립성, 지혜, 문제해결력, 용기 등의 면에서, 대상도서 중 82.43%가 자주적이고 비의존적이며, 자기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고 내적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972년 Weitzman 등의 연구에서 남아는 독립적인데 반해 여아는 의존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으나(Patt & McBride, 1993), Heintz(1987)의 연구를 비롯하여 최근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이은정, 1998)에서는 주인공이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대부분 자기독립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격 또는 능력이 있어서 성별에 따른 남녀평등주의적 최근 인식의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셋째, 강인함, 진취성, 용기, 동정심, 인정 등의 표현에 있어서, 대상도서 중 이와 같은 특성이 전형적인 남성성 또는 여성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성성 또는 인간성의 하나로 표현되고 있는 경우가 77.03%를 차지하고 있다. Turner Bowker(1996)는 '큰, 무서운, 사나운' 등의 형용사가 활동적이고 세력있는 남성인물 표현에 쓰이며, '아름다운, 두려워하는, 가치가 있는' 등의 형용사는 여성 묘사에 쓰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Narahara, 1998b, 재인용).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강인함, 동정심 등의 성격적 특성이 남녀야 공히 지닐 수 있는 인간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적 일을 수행하고 남성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Kashey(1993)의 연구 결과와 함께, 이전의 도서에 비해 변화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겉으로 직접 드러난 단서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인물들의 성격, 상황에 따른 내적 요인의 평가에 의한 것이며, 이야기 진행과정상 부분적으로는 남성성 또는 여성성 등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친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라도 전체적 맥락 속에서 그 도서가 주는 메시지의 성격으로 평가된 결과이다.

넷째, 남녀 유아가 자신을 동등한 권리를 지닌 인간으로 인식하는가의 문제를 보면, 대상도서 중 남녀 유아 모두가 자신을 동등한 권리를 지닌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달하고 있는 도서가 64.86%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24.32%의 도서는 유아에게 그가 남성 또는 여성이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선행연구(Handerson, 1978, 재인용 ; Heintz, 1987 ; Schubert, 1980)에서는 남성이 결정권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는 반면 여성은 그에 비해 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자아개념이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여성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의심하며, 우정의 개념도 남아들 사이에서만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신 연구(성정아, 1995 ; 이은정, 1998 ; Creany, 1995)에서는 남성의 전통적 역할이 줄어들고, 비 전통적 역할에 종사하는 여성이 점차 증가하며, 유아용 도서에 중성인물이 많이 등장함으로써 책을 읽으면서 유아가 그 인물의 성을 남성이나 여성 어느 한 쪽에 국한시키지 않고 적절히 생각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남녀 양성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성차별주의를 배격하고 성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오늘날 현대 여성해방의 인식이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남녀 성차를 이유로 아직도 24% 이상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세한 불평등과 차별 극복을 위한 인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림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교육 도서 선정의 기회와 질이 유치원 소장 도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바, 유아용 교육 도서 제공을 위한 기관의 관심과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 결과, 2001년 현재 시점에서도 미세한 성차별적 양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 교사를 포함한 성평등적 유아교육의 인적·물적 환경 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 도서는 1992년 이후 출판된 그림책으로서, 지식정보책이나 글 없는 그림책, 전기문 등이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지식정보책의 삽화나 글 없는 그림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별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확인되는 성별의 양상을 살펴, 유아가 노출되어 있는 독서 환경의 남녀평등적 지향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용 그림책에 나타난 여성성 및 남성성 등의 성관념과 함께 남녀평등적 측면을 살펴봄에 있어서, 아직도 다양한 측면에서 성차별주의의 흔적이 발견된다. 성인의 경우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의 실태는 심각한 지경이다. 남녀 유아 상호간의 시각 표현에 있어서도, 여아는 '의견제시 상황에서의 소극적 태도·비활동적인 신체활동

동·의존적 태도·감정적 특성'과 연관되어 표현되는 등, 미세한 불평등의 장면이 포착되고 있다. 차후 유아 도서의 선정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 및 학부모의 세심한 배려가 요청된다.

넷째, 유아용 그림책에 남아있는 미세한 불평등을 극복하고, 보다 평등한 유아교육 및 교육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림책 작가는 남녀 성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성평등 의식을 자신의 삶의 지향과 작품 속에 그려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는 성평등 개념 및 실현 방안을 직접적인 교육활동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유아에게 직·간접 경험의 기회를 마련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교육 관련학계에서는 반편견 또는 성평등주의적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일환으로 유아교육 현장의 인적·물적 환경에 내재한 작금의 미세한 불평등을 밝히는 후속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차후의 성평등주의적 교육의 발판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여아의 적극적인 태도와 활동적인 신체활동, 독립적이고 진취적이며, 감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한편 남아의 부드러운 태도와, 인내하고 동정적인 감정적 측면 등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양성성 나아가 보다 바람직한 인간성을 지향하는 교육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희(1998). 전형적·비전형적 성역할 이야기가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유진(1999). 동화에 나타난 편견요소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공인숙, 최연실(1994). 양성적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역량감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5(1), 187-203.
- 권기남(1999). 유아의 성별 및 기질에 따른 문화선호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동일(편저). (1993). **성의 사회학**. 서울 : 문음사.
- 김미혜(1985). 아동의 공간능력과 성역할 지향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6(1), 61-74.
- 김주희(1998). 유아용 그림책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희, 박상희(1999). **유아문학교육**. 서울 : 학지사.
- 김희경(1999). 그림동화 등장인물의 전형성 연구-프러이드, 융, 그리고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단현국(1993). 한국 유치원 아동의 성역할 선호성에 관한 연구(IV). **한국교원대학교논문총**, 9(2), 79-103.
- 문혜옥, 윤미현(1992). 유아기의 성역할 학습에 관한 연구. **경주전문대논문집**, 311-330.
- 박혜경, 정대련(2000). 유치원 도서활용 실태 분석. **한국아동학회지**, 21(4), 211-226.
- 성구진(1995). 반편견 그림동화가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정아(1995). 창작그림책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건호(1992). 아동의 성향상성, 성고정관념과 성유형화된 활동의 선호와의 관계. **강남대논문집**, 23, 283-297.
- 신건호(1993). 아동의 지적능력, 성향상성, 성고정관념과 성전형화된 활동의 선호와의 관계. **강남대논문집**, 24, 235-250.
- 심은아(1997). 동화와 그림자료를 통한 토의 활동이 유아의 성역할 발달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병철(1994). 현대사회와 성 역할 - 성 역할 구분 및 성 평등을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연구**, 18, 13-20.
- 안선영(1989). 유아의 성역할 개념 발달에 관한 기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염명순, 조복희, 권희경, 한유미(1999). 비전형적 성역할 교육 프로그램이 유치원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20(4), 91-104.
- 유영란(1997). 동화를 통한 남·여아동의 성역할 사회화에 관한 연구 - 경남 울산지역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현옥(1999). 여성학적 교육이론의 가능성과 그 의미. **교육철학회**, 22, 81-94.
- 이경우, 이은화.(1999) **반편견 교육과정**. 서울 : 창지사.
- 이영석(외7인, 1993). 한국아동도서 편집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II - 기본유아용 그림동화책 분석을 중심으로. (계몽아동연구소) 연구보고 5.
- 이은정(1998). 초등학교 국어과 창작동화에 나타난 남녀역할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재옥(1999). 유아교사의 성역할 인식과 양성평등 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교사교육**, 16(2), 217-237.
- 이현정(1999). 유치원의 교사용 그림동화에 대한 평가. **미래유아교육학회지**, 6(1), 191-215.
- 장미경(편저). (1996).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여성운동**. 서울 : 도서출판 문원.
- 정순화(1992). 성과 관련된 과제의 선호에서의 성도식의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13(2), 65-80.
- 정현희(1989).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성역할 기대 및 관련변인. **논문집**(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편), 16, 459-473.
- 정현희(1993).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성특성 기대에 관한 연구. **논문집**(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 20, 307-316.
- 조정란(2000). 유아용 그림동화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 어린이문학연구회(1999). **환상그림책으로의 여행**. 서울 : 다음세대.
- 한국여성연구소(1999). **새 여성학강의**. 서울 : 동녘.
- 한국여성학회(편저). (1998). **여성학의 이해**. 서울 : 경문사.
- 한국 유아교육학회(편저). (1996). **유아교육사전**. 한국사전연구소.
- 홍선옥(1995). 유아의 그림동화책에 나타난 복식과 성역할에 관한 고찰. **한양여전문집**, 18, 627-650.
- 홍연애(1991).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발달과 이야기 유형의 효과. **한국아동학회지**, 12(2), 94-110.
- 황은주(2000). 반편견 그림동화를 통한 문학적 접근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경(1993). 어린이들의 성 이해와 성 유형 선호성 및 고정관념과의 관계. **상지전문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 편), 89-115.
- 황혜신, 이순형(1990). 아동의 성향상성과 성별특징화행동. **한국아동학회지**, 11(2), 82-97.
- Alexander, G. M. & Hines, M. (1994). Gender labels and play styles: Their relative contribution to children's selection of playmates. *Child Development*, 65(3), 869-879.
- CEACRE (1996). Sex role attitudes and sex role stereotyping: Recent literature, Career Equity Assistance Center for Research and Evaluation, Montclair State Univ. Upper Montclair. NJ. ED 404 462.
- Carter, D. B. & Levy, G. D. (1988). Cognitive aspects of early sex-role development: The influence of gender schemas on preschoolers'

- memories and preferences for sex-typed toys and activities. *Child Development*, **59**(4), 782-792.
- Creany, A. D. (1995) The appearance of gender in award-winning children's books, ED 391 510.
- Fagot, B. I. & Leinbach, M. D. (1989) The young child's gender schema: Environmental input, international organization. *Child Development*, **60**(3), 663-671.
- Halsall, S. & Green, C. (1995). Reading aloud: A way for parents to support their children's growth in literacy. *Early Childhood Educational Journal*, **23**(1), 27-31.
- Heintz, K. E. (1987) An Examination of the sex-role and occupational-role presentations of female characters in Award-winning books, ED 286 225.
- Spitz, H. H. (1999) *Inside Picture Books*, Yale University Press.
- Henderson, I. (1978) Textbooks as Reinforcers of Sexist Attitudes, ED 206 789.
- Kashey, M. J. (1993) Occupational and Activity Gender Trends in the Berenstain Bear Series ED 374 470.
- Martin, C. L., Eisenbud, L. & Rose, H. (1995). Children's gender-based reasoning about toys. *Child Development*, **66**(5), 1453-1471.
- Mitchell, J. E., Baker, L. A. & Jacklin, C. N. (1989)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twin children: Gene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Child Development*, **60**(6), 1475-1485.
- Mosely, J. J. (1997) Multicultural Diversity of Children's Picture Books: RobertFulton Elementary School Library, ED 413 926.
- Narahara, May. M. (1998a) Gender bias in children's picture books : A look at teachers' choice of literature, ED 419 247.
- Narahara, May. M. (1998b) Gender stereotypes in children's books, ED 419 248.
- Patt, M. B. & McBride, B. A. (1993) Gender Equity in Picture Books in Preschool classroom, ED 362 298.
- Schubert, N. A. (1980) Sex-role stereotyping in Caldecott Award Books, ED 220 870.
- Singh, M. (1998) Gender issues in children's literature, ED 424 591.
- Sprung, B. (1978) Perspectives on Non-sex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College Press.
- Tong, R. (1999). **페미니즘 사상 - 종합적 접근**. 이소영 역. 서울 : 한신문화사.
- Tuttle, L. (1999). **페미니즘 사전**. 유혜현, 호승희 역. 서울 : 신성사.
- Webb, J. A. (1993) The politics of children's literature, ED 399 936.
- Wintre, M. G., Hicks, R. & McVey, G. (1988) Age and sex differences in choice of consultant for various types of problems. *Child Development*, **59**(4), 1046-1055.
- Zarbatany, L., Brunshot, M., Meadows, K. & Pepper, S. (1996). Effects of friendship and gender on peer group entry. *Child Development*, **67**, 2287-2299.
- Zeece, P. D. (1997). Books, bias, and best practice. *Early Childhood Educational Journal*, **24**(3), 173-177.
- Zeece, P. D. (2001). Meeting children's needs with quality literature: Part one. *Early Childhood Educational Journal*, **28**(3), 175-180.